

‘현대판 춘향과 심청’ 신개념 마당창극 만난다

CULTURE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시립창극단 특별기획 ‘열어볼 결심’ 23일 광주예당 소극장 판소리 다섯바탕 캐릭터 재해석...“창단 36주년 도약 무대”

판소리 다섯바탕의 고전 주인공들이 현대판 버전으로 유쾌하게 돌아온다.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박승희)의 특별기획 공연 천변만화(千變萬化)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이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립창극단이 창단 36주년을 맞이해 처음 도전하는 최초의 마당창극이다.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흥보가 등 판소리 다섯바탕의 주인공들을 새롭게 재해석해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위로와 반전을 선사한다.

작품에는 심청가의 심청, 춘향가의 춘향, 수궁가의 토씨 등 고전 캐릭터들이 현대 버전으로 등장한다. 시너 인성 강의 일타강사가 된 심학규, 연예 기획사 대표 성춘향, 패션비즈니스 대표 심청, 정치

인 토씨 등 고전 캐릭터들의 특징을 되살려 재치 있게 그려냈다. 극중 춘향은 기존 작품의 열녀 이미지가 아닌, 사랑도 비즈니스도 주체적으로 이끄는 여인으로 등장한다. 춘향뿐 아니라 심청, 토씨 등 모든 캐릭터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주체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마당창극은 1970년대 이후 형성된 공연의 한 유형으로, 무대와 관객의 적극적인 소통과 유연한 운용이 특징이다. 무대와 객석이 가까운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배우들이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무대로 전통 창극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전통 창극 음악에서 나아가 케이팝과 트로트, EDM 등이 어우러진 음악 구성으로 인물의 내적 욕망과 자유분방함을 표현한다.



광주시립창극단의 특별기획공연 천변만화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이 오는 23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창극단의 지난 공연 모습.

배우들의 예술적 에너지와 자율성을 발휘한 연극적 연기, 역동적인 안무 등은 주요 관객 포인트다. 조선시대를 지나 2025년 현재까지 시대를 반영해 캐릭터들의 개성을 살린 의상도 볼거리다.

제작진은 총감독 박승희, 연출 오진욱, 극작·작사 임영욱, 작곡 홍정희, 작창 신유진, 안무 배승현, 의상 박지우가 참여했다. 학구 역에 정승기, 춘향 역에 이서희, 토씨 역에 정동렬, 심청 역에 김연옥, 끝동

역에 이은비, 갈랑 역에 박형진 등이 출연한다.

박승희 예술감독은 “‘심청가’, ‘수궁가’ 등 전통 작품들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작품이 갖는 메시지가 시공간을 초월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열어볼 결심’은 모두 내면에 각자의 욕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는 휴머니즘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면서 “창단 36주년을 맞이한 광주

시립창극단의 도약을 알리는 공연으로, 관광 도시 광주를 알리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되기를 바라며 준비했다. 창극단이 처음 선보이는 작품에 함께 하셔서 응원과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공연은 5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입장료는 S석 2만원, A석 1만원.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인간과 동물 간 공존...정서적 교감 탐구

국윤미술관 ‘Live together’전 25일까지 회화·조각·혼합매체 등 17명 작가 작품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은 가정의 달 기획 ‘Live together’전을 지난 4월 25일 개막, 오는 25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이라는 개념을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춰 확장하고, 그 의미를 미술 작품을 통해 조망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예술 속에서도 새롭게 조망되고 있는 가운데 ‘Live together’전은 반려동물을 중심 주제로, 인간과 동물 간의 공존과 정서적 교감을 깊이있게 탐구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에게 감동과 성찰의 시간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는 인간과 반려동물 간의 관계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려동물은 이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교감하며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작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통해 표현하며, 공존과 감정의 결을 시각화한다.

이 전시는 반려동물을 다룬 전시만이 아닌, 인간과 동물이 서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사유하는 장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에는 회화, 조각, 혼합매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선보이며, 김선희 김지연 김해성 박미애 박정근 박정일 서현호 오선호 윤서영 이다에 이두한 이진수 이진상 조유나 주성희 최순임 한미경 등 총 17명의 작가가 출품했다.

이들 작가는 저마다의 스타일과 기법으로 반려



한미경 작 ‘여우가 차버린 집’



김해성 작 ‘반가사유미소’

동물과의 관계를 표현하며,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가족이라는 개념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한다.

먼저 현실과 상상을 결합한 유쾌한 시선으로 반려동물을 현대적 캐릭터로 형상화한 김선희 작가의 작품 ‘엄마 없는 동안’에는 기하학적 요소와 사실적 표현이 어우러져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반려동물과의 관계 속 상상력을 자극한다.

절제된 선과 색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표현한 김해성 작가는 ‘반가사유미소’를 통해 동물의 섬세한 감정을 포착해내고 있으며, 동물의 표정을 통해 유머와 따뜻함을 전하고 있는 서현호 작가는 ‘재생의 땅’을 통해 인간과 동물, 자연이 연결돼 공존하는 세계를 탐구한다.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의 유사성을 주목해온 최순임 작가는 ‘우리 함께라서 다행이야’를 통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공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한미경 작가는 ‘동물의 이야기를 인간의 삶에 투영해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다. ‘여우가 차버린 집’과 ‘맹탕의 하루’를 통해 일상의 순간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의 감동을 전한다.

국윤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 대해 “지역 작가들과 관람객 간의 새로운 연결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여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면서 “관람객들은 반려동물이라는 친숙한 주제를 통해 예술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국악 미래’ 이끌 기악 예인들의 축제

24회 대한민국 빛고을기악대제전 내달 7~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한국전통예술산조진흥원 주최 명인부 종합대상 대통령상 수여

호남 최대 대통령상 기악대회인 ‘제24회 대한민국 빛고을기악대제전’이 6월 7~8일 오전 9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광주 남구와 (사)한국전통예술산조진흥원(이사장 황승욱)이 주최하는 빛고을기악대제전은 국악의 미래를 이끌 기악 예인들을 발굴하는 대회다.

자랑스러운 산조를 올곧게 계승하고 광주가 가야금 산조의 분향임을 널리 알릴 시민들의 문화예술 정체성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경연 종목은 관악·현악·가야금병창이며, 참가대상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일반으로 나뉜다.

7일 오전 9시부터 예선이 치러지고, 다음날인 8일 오전 9시부터 본선 경연이 이어지며 전년도 대상수상자의 축하공연과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이 이뤄진다.

명인부와 대학·일반부, 고등부, 신인부, 신인부 단체, 중등부, 초등부, 학생부 단체 총 8 부문으로 나눠 종합대상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준우수상을 시상한다.

명인부 종합대상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1500만원의 상금과 상장 그리고 부상으로 고흥국악기연구원과 류중선국악기연구원에서 악기(가야금·아쟁·해금 등 택)를 수여한다.

또 대학·일반부 종합대상 국회의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을, 고등부 종합결선 1위 교육부장관상 수상자와 종합결선 2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100만원, 60만원을 전달한다.

황승욱 이사장은 “제21회부터 산조음악의 본향에 걸맞게 대통령상이 신설되면서 품격이 격상됐다. 24회를 맞아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으려 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



호남 최대 대통령상 기악대회인 ‘제24회 대한민국 빛고을기악대제전’이 6월 7~8일 오전 9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행사 참가자들의 모습.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